

01 교회소식

감동의 신앙

2019 부활절 공연 소식과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 신앙의 정체가
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아르헨티나 마리아 목사의 간증.

02 생명의 말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좇아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원수 마귀 사단이 건드리
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뿐 아니라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

03 간증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십자가의 도' 말씀을 통해 생명의 제단을 만나 주님께 변함없이 헌신
하니 항상 보호받고 축복이 넘친다는 허명옥 집사 간증.

04 화보

"잊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

십자가 고난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을,
2019 부활절 공연 '잊을 수 없는 사랑' 화보로 만나본다.

만민뉴스

제886호 2019년 4월 28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신앙을 새기다!”

2019 부활절 기념 공연 '잊을 수 없는 사랑'

지난 4월 19일 금요일야예배 2부 시, 부
활절 기념 공연 '잊을 수 없는 사랑'이 우
리 교회 본당 특설무대에서 펼쳐졌다.

GCN방송(www.gcntv.org)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 된 이날 공연은
부활절 전야제로 '놀라워라 주의 사랑'이
라는 닛시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연합성가
대의 합창으로 막을 올렸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길을 갔던 초대교
회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과 십자가의 고난, 부활, 승천 등을 재연
해 줌으로 마치 2천여 년 전 이스라엘 땅
에 함께 있는 듯한 감동을 선사하였다.

공연을 주관한 예능위원회의 파워워십
팀, 빛의소리중창단, 크리스탈싱어즈, 천
상의소리선교단과 함께 성도들도 출연하
여 어느 때보다 혼신을 다한 연기를 보여
주었고, 닛시오케스트라와 연합성가대,
할렐루야반주단이 함께하였다.

이 외에도 안무, 무대, 음악, 진행, 영상,
소품, 의상, 분장 등 각 분야에서 성도들
이 스태프로 수고하였으며, 외부공연전
문 스태프들이 조명, 특수효과를 맡아 총
220여 명이 공연에 참여하였다.



부활절을 맞아 방문한 이스라엘 쉴로
미 아브라모브 목사는 “공연은 너무나 놀
라웠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부활의 메
시지를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출연진들
은 단순히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시에 살고 있는 듯한 생생한 감동을 전
해주었지요. 부활의 소망을 느끼며 메시

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라고 했다.
한편, 예능위원회(위원장 이지영 전도
사)는 부활절 이외에도 교회창립기념일,
성탄절을 비롯해 각종 행사 때마다 아름
다운 무용과 찬양 등을 선보여 성도들에
게 많은 은혜와 감동을 끼치고 있다.
부활절 공연 연출을 담당할 최효진 집

사는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
시는 은혜가 더욱 컸습니다. 예능위원회
와 출연진이나 스태프로 수고하신 성도
님들이 하나 되어 행복하게 준비했고, 공
연도 성령의 감동함 속에 진행됐지요. 부
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겼다는 성도님
들의 고백에 감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저는 유방
암 수술과
치료, 당뇨
병, 고혈압,
만성 빈혈,
과체중 등
건강상의 문제와 다른 여러 문제로 인해
사역하는 데에 열정과 헌신이 사라지고
영적으로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마르틴 알바레스 목사님을
통해 만민의 사역을 알게 되면서 2018
년 8월,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아르헨티
나만민교회에 가게 되었지요. 이후로 다
시 한번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재록 박사님의 설교를 들

“영적으로 차갑게 식어가던 제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마리아 아나 롤란 목사 (아르헨티나 빅토리오소 교회)

고, 그분의 믿음의 행함과 하나님을 기
쁘시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새
로워진 것입니다.

특히 매주 수요일마다 아르헨티나만
민교회에서 열리는 '믿음의 분량' 세미
나에 참석하며, 제 모든 생각과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지요. 이전에 전혀 느끼지
못한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만민중앙교회와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고 성령님을 느낄 수 있었지요. 성

결을 강조하는 복된 소식은 제 안에 성
령의 감동으로 임했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채워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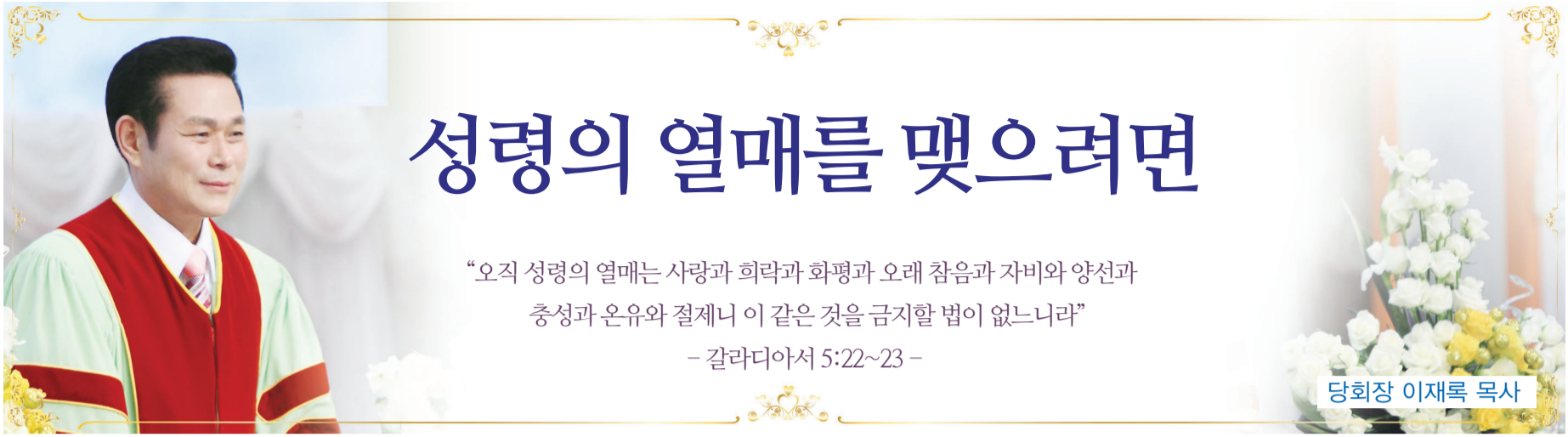
2019년 1월 25일, GCN방송을 통해 만
민중앙교회 금요일야예배에 참석했는
데, 시차로 인해 당일 오후 2시쯤 은사집
회가 시작되었지요. 저는 이 시간을 통
해 영적으로 새로워졌으며, 당뇨병과 만
성 빈혈을 치료받았습니다. 은사집회 당
시 몸 안팎으로 성령의 불이 임해 영적

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느꼈는데, 병원
검진을 받으면서 제가 온전히 치료된 사
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록 박사님의 설교 말
씀을 듣기 시작할 당시 130kg에 육박
했던 제 몸무게가 7개월이 지난 지금은
85kg까지 줄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부활절 공연은 너무나 멋지고 아
름다웠습니다. 감동함 속에 눈물로 공연
을 보았지요. 내용은 매우 영적이었으
며, 연기도 훌륭해 섬세하고 사랑이 가
득한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
임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
리스도, 성령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갈라디아서 5:22~23 -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도 바울은 원래 철저한 유대교도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 주님을 만나 회개하였습니다. 그동안 모세의 율법에 얽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의 선교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라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이유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칠 수 있습니다.

1.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갈라디아 지방으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유대인 회당에서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니 무수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 눈이라도 빼 줄 정도로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였습니다(갈 4:15).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뒤,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치니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 사도들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회의 전후 장면이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과 장로, 교회 대표가 모여 팽팽한 의견 대립과 수렴 끝에 이방인들에게는 네 가지만 금하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똑같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자유를 준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회의의 결과가 이방인 교회에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와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교회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들이 몰래 들어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사도 바울을 비방하며 성도들을 요동케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듣고 믿음에서나” 하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 깨닫게 합니다.

또한 자신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기에 참이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몸에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마음을 할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임을 강조하지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 알려 주면서 복음의 진리로 얻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깨우쳐 줍니다.

2.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 일까요?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관영하여 사람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 무엇이 죄인 줄 알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기에 때가 이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갈 3:13-14)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5:17-20)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면서 결론적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성령을 좇아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유를 얻었으나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혹여라도 이 자유로 인하여 다시 죄를 짓고 현저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육체의 일을 행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좇아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원수 마귀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3. 사랑으로 시작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사랑을 이룬 만큼 희락의 열매가 맺혀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누구와도 걸리지 않으며 화평의 열매가 맺히지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물론 자신과의 화평, 모든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아침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아침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아침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아침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 리 은 행 :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우리가 선으로 오래 참아 줄 때 자비의 열매가 맺혀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대라 해도 선으로 참으면 자비를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상식 밖의 행동을 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를 헤아려 포용해 주지요.

자비의 열매가 맺힌 사람에게는 양선의 마음도 나타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도 꺾어버리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처럼 영혼의 등불이 꺼져 가는 사람이라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되지요. 이런 양선의 열매가 맺히면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온 집에 충성하며, 온유한 모습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습니다. 매사에 악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고 포용하며 감싸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의 열매가 골고루 잘 맺히려면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풍성하면 좋지만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지 않도록 절제하면서 성령의 뜻을 좇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4.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보혜사 성령은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진정한 자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하는 삶을 방해하는 죄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행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쇠는 갖고만 있다고 해서 저절

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있어 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대로 행하면 그 안에 담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려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어떤 것인지 마음에 잘 새기고 행하여 아름답게 맺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진리를 온전히 행하여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섬세하게 인도를 받아 만사형통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는 물론, 신앙의 최종 목적지인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도 해같이 빛나는 영광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명욱 집사 (71세, 2대대 21교구)

1970년, 스물두 살의 나이에 모 교회에서 합동결혼식을 올리고 이천에서 과수원을 하면서 1남 4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곳에서의 가르침으로 인해 축복기도를 받는 예식을 통해 원죄와 자범죄가 소멸돼 죄와는 상관없는 신령한 사람이 됐다 믿었고, 그 안에서 축복의 가정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 안에 요동하는 죄성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특별하다’라는 교만으로 가득 차 스스로에게 속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제야 제 마음 안을 들여다보니 회칠한 무덤과도 같았고, 그곳의 여러 부조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곳 생활을 정리하고 아내와 자녀들은 이전의 한 교회에 다니게 한 뒤, 저는 일요일이면 산에 올라가 “저희 가족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분을 만나게 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 말씀을 통해 만민중앙교회 등록해

1997년,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에 은혜로운 집회가 있다고 하여 참석했습니다. 강사 이수진 목사님이 ‘십자가의 도’ 설교를 하시는데 세상 때가 묻지 않은 맑고 고운 모습에 놀랐지요.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와 금식으로 풀어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저처럼 정확하게 풀이 받으시고 자녀를 저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다면 도대체 어떤 분일까, 내가 찾던 목회자가 아닐까?’

저는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주일에 서울 구로동의 만민중앙교회를 찾아가 대예배에 참석하였지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내내 제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당회장님의 기도로 치료받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지요. 저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며 등록하였고, 얼마 후 가족도 만민의 양 떼가 되었습니다.

무릎 인대가 파열된 딸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치료받고

1998년 1월, 둘째 딸(허신경 집사)이 스키를 타러 갔다가 오른쪽 무릎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가 보니 무릎 인대가 파열되어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뚝발이가 될 수 있다 했지요. 그러나 딸은 깁스를 한 채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때마침 특별 환자성회가 열려 2월 5일 성회 시 딸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지요. 이때 성령의 불을 받아 전혀 구부릴 수 없었던 딸의 오른쪽 무릎이 정상적으로 구부러지면서 강충강충 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전에 지성전이 세워져

비로소 제 신앙은 천국을 향한 지름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회장님의 설교를 통해 마음을 할례함으로 영혼이 잘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며, 참된 신앙생활임을



깨닫게 되니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기 시작했지요.

또한 저희 부부는 이전에도 만민지성전이 세워지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 뜻을 같이한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저희는 자녀들을 위해 마련했던 피아노를 기쁨으로 헌물했지요.

마침내 1998년 11월 이천지성전이 세워졌고, 동생들과 조카 등 일가친척을 전도하니 지성전은 부흥하였습니다. 저는 주를 위해 무언가 더 드리고 싶어 만민봉사대에 들어가 주일이면 경기도 이천에서 서울 본교회를 오가며 충성하였고, 살롬성가대 사명도 감당하였지요.

지금은 조장으로서 영혼들을 살피고 이천지성전 마당에 과실수를 심고 가꾸며, 차량주차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는 구역장, 기도제물로 헌신하였고 지금은 저와 함께 사찰과 같은 마음으로 이천 지성전을 섬기고 있습니다.

항상 보호받고 축복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

저는 이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작은 구두 수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중앙에는 컨테이너들이 나란히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제 가게가 붙어 있지요.

2014년 12월, 여기서 화재가 발생해 컨테이너 두 대와 그 맞은편에 있던 대형버스까지 불에 탔습니다. 불이 크게 번져 건물 1층은 물론 2층 유리창도 깨지고 벽면까지 검게 그을렸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옆에 위치한 제 가게는 멀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제 믿음은 굳건해졌고,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아들은 주의 종으로, 딸과 사위는 교회직원, 구역장, 기관장으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1. 핍박과 고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2.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권능의 사역을 베푸시는 예수님.
3.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시며 사랑하는 제자들과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4.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고도 처벌을 원하는 백성의 외침에 결국 십자가 처형을 언도하는 빌라도.
5.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
6. 십자가에 달려 가상칠언을 하시고 운명하신 예수님.
7.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대면한 막달라 마리아.
8.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447-9217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감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3430-331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춘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352-8336